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 상품 다양성 강화 아마존US 상품 수백만 개 추가...배송 기간도 줄여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대표 하형일)가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있는 상품을 11번가를 통해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서비스를 더 내실 있게 강화했다.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홈 화면

11번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 지난 5월 아마존 미국(US) 상품 수백만 개를 추가해 상품 구성을 다양화한 것이다.

검색, 배송 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아마존에서 한국으로의 배송 기간도 영업일 기준 평균 6~10일에서 4~8일로 줄었다.

11번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직구 분야에서 국내

대표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

11번가 관계자는 "판매 상품 구성에 일부 부족함을 느꼈던 고객의 아쉬움을 많은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 다양한 해외 인기 브랜드를 소개하고 오직 아마존에서만 경험하는 특별한 쇼핑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1번가는 상품을 새로 추가하면서 패션, 잡화, 뷰티, 디지털, 가전제품, 주방, 인테리어, 건강식품 등 다양한 인기 브랜드를 선정해 매일 특별한 혜택과 함께 소개하는 '아마존 블러썸 프로모션'도 선보였다. 또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라이브 방송을 월 2회 고정 편성으로 확대해 브랜드와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3회 진행한 라이브 방송은 최대 119만, 매회 평균 65만 이상의 시청 수를 기록하며 '라이브11'의 인기 코너로 자리 잡았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는 11번가 회원이면 누구나 2만8천 원 이상 구매 시 배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구독 상품 '우주 패스'(Universe Pass, 월 4천900원부터)에 가입하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상품 단 1개를 구매해도 무료 배송 혜택을 준다.

아울러 SK페이 포인트 3천 점,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할인 쿠폰 1만 원권 (5천 원×2매)을 제공한다. ▼